

1.②	2.③	3.②	4.③	5.①	6.⑤	7.②	8.④	9.①	10.③
11.⑤	12.③	13.④	14.①	15.②	16.④	17.④	18.③	19.③	20.⑤
21.②	22.③	23.⑤	24.②	25.④	26.⑤	27.③	28.⑤	29.①	30.④
31.④	32.①	33.②	34.⑤	35.⑤	36.④	37.④	38.③	39.②	40.①
41.③	42.⑤	43.①	44.③	45.②	46.①	47.⑤	48.③	49.②	50.④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분 고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고 힘들게 생각될 때 '궁즉통(窮則通)'을 떠올려 보세요. 궁즉통은 『주역』에 나오는 말로 궁하면 통한다는 뜻입니다.

궁즉통에서 궁은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말합니다.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태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결국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통입니다.

궁즉통, 아무리 궁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통한다는 점에서 궁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궁즉통의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화자는 <주역>에 나오는 한자어 궁즉통(窮則通)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궁'은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이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또, 힘들더라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괴로워하는 친구에게 이 방송을 들려주기에 적합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이라는 내용은 있으나 핵심은 아니며, 더욱이 자만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③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추리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기심과 배려심으로 추리할 만한 내용이 없다. ⑤ 방송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이 중심이다. 더욱이 성과 이후의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2.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3차원 입체 영상이 나오는 3D 영화나 3D 텔레비전에 대해 들어 본 적 있으시죠? 1920년대 초에 이미 상업용 3D 영화가 나왔다고 하니 3D 영상 기술은 역사가 꽤 오래된 것이지요. 오늘은 평면인 화면을 입체로 느끼게 하는 이 3D 영상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람의 두 눈은 약 6cm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망막에 맺히는 영상에는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를 시차라고 하는데, 사람의 뇌는 시차가 있는 두 영상을 하나로 융합해 입체감이 있는 영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3D 영상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실현하려면 먼저, 왼쪽 눈을 위한 영상과 오른쪽 눈을 위한 영상, 다시 말해 시차를 고려한 두 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다음으로, 오른쪽 눈을 위한 영상은 오른쪽 눈으로만, 왼쪽 눈을 위한 영상은 왼쪽 눈으로만 보게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눈처럼 간격을 띄운 두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같은 대상을 촬영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우 각각 다른 영상은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3D 텔레비전에 많이 사용되는 셔터 방식과 필터 방식의 원리가 조금 다른데요, 셔터 방식의 경우에는 화면에 각각의 눈을 위한 영상이 번갈아 표시될 때, 3D 안경의 액정이 좌우 교대로 개폐되면서 각각의 눈이 두 영상을 번갈아 보게 합니다. 필터 방식의 경우에는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내면, 3D 안경이 각각의 눈에 맞는 영상만 걸러서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차가 있는 평면 영상을 실제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강연 중간 부분의 ‘두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눈처럼 간격을 띄운 두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같은 대상을 촬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3D 영상을 만들 때에는 시간을 두고 두 번 촬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강연의 첫 부분에 ‘1920년대 초에 이미 상업용 3D 영화가 나왔다고 하니’라는 언급이 있다. ② 사람의 뇌는 시차가 있는 두 영상을 하나로 융합해 입체감 있는 영상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했다. ④ 강연의 끝 부분에서, 셔터 방식은 각각의 눈을 위한 영상이 번갈아 표시되고, 3D 안경의 액정이 좌우 교대로 개폐되면서 각각의 눈이 두 영상을 번갈아 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마찬가지로 강연의 끝 부분에서, 필터 방식의 경우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내면 3D 안경이 이를 걸러서 각각의 눈에 맞는 영상만 보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p>학 생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고등학교 신문반 학생입니다.</p> <p>교 수 : 예, 안녕하세요.</p> <p>학 생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신문 특집 기사로 '스포츠마케팅'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p> <p>교 수 : 스포츠마케팅은 기업이 스포츠 팀을 운영하거나 선수 또는 대회를 후원해서 기업이나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국내외의 우수 기업들이 유명한 스포츠 팀이나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막대한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마케팅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p> <p>학 생 : 그럼 월드컵 경기 때 기업들이 길거리 용원을 후원한 것도 스포츠마케팅이라 볼 수 있을까요?</p> <p>교 수 :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죠. 그 덕분에 대학에서도 스포츠마케팅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p> <p>학 생 : 네. 스포츠마케팅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학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p> <p>교 수 : 워낙 공부할 분야가 다양해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포츠마케팅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교과목들을 배웁니다.</p> <p>학 생 :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p> <p>교 수 : 스포츠마케팅이 선진국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어요.</p> <p>학 생 :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p>

3. 추론적 사고(정보 조직하기)

정답해설 : 인터뷰에서 스포츠마케팅의 문제점을 이끌어낼 만한 내용은 교수의 마지막 발언, 즉 '스포츠마케팅이 선진국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발언은 우리나라 스포츠마케팅의 현황을 언급하는 내용이므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인터뷰 첫머리에서 '스포츠마케팅은~기업이나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③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서 '하지만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

다고 볼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④ ‘국내외의 우수 기업들이 유명한 스포츠 팀이나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막대한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마케팅의 사례’라는 언급이 있다. 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스포츠마케팅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교과목들을 배웁니다.’라는 설명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4~5. 이번에는 학급 회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 장: 학급 여행지 선정 투표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제안이 있어,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안자(남학생): 지금처럼 3개의 후보지가 있는 경우 다수결 방식으로 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 곳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1순위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지 하나를 탈락시킨 후, 이 사람들의 2순위 표를 나머지 두 후보지에 1순위로 투표한 것처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의 장: 여기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자(여학생):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 학생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새로 1순위가 된 2순위 표와 처음의 1순위 표의 가치가 같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1순위 표가 가장 많았던 후보지가 탈락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의 장: 제안자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자: 물론 1순위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요. 만약 다수결 방식으로 할 경우, 우리 반 30명의 학생 중 심지어 11명의 외사로 여행지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도 투표 방식으로 하면 학생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자: 선호도 투표 방식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1, 2, 3순위 표의 가치에 차이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안자: 그러면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1, 2, 3순위를 적어서 내는 것은 그대로 하고, 대신 순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 후, 그 점수의 합계로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대자: 음……, 그렇게 하면 선호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겠네요.

의 장: 수정 제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사실적 사고(발언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제안자인 남학생은 다수결 방식의 경우 1위를 차지한 의견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1순위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제안자가 소수의견의 반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개의 후보지가 있는 경우 다수결 방식으로 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 곳이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선호도 투표 방식은 1순위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지 하나를 탈락시킨 후, 이 사람들의 2순위 표를 나머지 두 후보지에 1순위로 투표한 것처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반대자인 여학생은 선호도 투표의 경우 새로 1순위가 된 2순위 표와 처음의 1순위 표의 가치가 같아져, 처음에 1순위 표가 가장 많았던 후보지가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선호도 투표 방식의 장점에 동의하지만 1, 2, 3순위 표의 가치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제안자인 남학생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 후, 그 점수의 합계로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제안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반대자인 여학생은 첫 발언에서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 학생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라며 시작하고 있다. 두 번째 발언에서도 ‘선호도 투표 방식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30명 중 11명의 의사로 여행지가 결정되는 사례를 구체적인 통계자료로 본다 하더라도 이 발언은 제안자인 남학생이 한 것이다. ⑤ 반대자인 여학생은 선호도 투표 방식의 경우 1순위 표와 2순위 표의 가치가 같아진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 다른 대상에 빗대서 말하지는 않았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민속놀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일의 수행 원리를 유추해내는 문제이다. ⑤에서는 난이도에 따라 일을 분류하여 단계별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연 날리기’와 ‘팽이치기’에서 착안한 내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오히려 팽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팽이를 치면 팽이가 더 잘 돌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용하면 연을 띄우기가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이 놓인 상황을 활용하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정확한’ 순간에 제기를 차야 하고, 널에서 뛰어오르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착안점에 근거할 때,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② ‘상대에 따라’ 널을 구르는 힘을 달리하고, 상승할 때와 하강할 때의 자세가 달라야 한다는 착안점에 근거할 때, ‘상황에 적합한 수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③ 그네가 ‘느려지면 (그네의 발판에) 힘을 주’어 구르고, 팽이가 ‘천천히 돌면’ 역시 힘을 주어 채찍질을 한다는 착안점에 근거하여, 진행 과정을 살펴 일(발판 구르기, 채찍질)의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④ 연을 반복하여 다루면 연의 조정이 쉬워지고, 제기차기를 연습하면 능숙하게 제기를 칠 수 있다는 착안점에 근거할 때, 꾸준히 노력하면 일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7. 비판적 사고 (구상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발표 계획에서는 김홍도의 화풍을 ‘당대의 사회 풍속’ 또는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②에서는 김홍도의 작품을 현대 미술 작품과의 관련성이나 현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구상의 계획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프리젠테이션의 주제가 ‘당대의 사회 풍속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김홍도의 화풍’이므로, ‘해학으로 시대를 그려 낸 김홍도의 화풍’이라는 제목은 주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김홍도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와 신문의 기사문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자는 계획이 반영되었다. ④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작품에서 느낀 ‘재미’와 실제 씨름을 관람하였을 때 느낀 ‘즐거움’을 관련지어 설명한다고 하였으므로, 발표자의 경험과 작품을 연계하여 표현하자는 계획이 반영되었다. ⑤ 당대 사회의 모습이 김홍도의 그림에 표현된 양상을 설명한다는 내용은 시대적 특징과 관련하여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작품의 소재와 기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에는 ‘화풍의 특징’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8.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2>는 우유 팩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자료 3>은 우유 팩 재활용 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두 자료에서 ‘폐기물 자원 활용을 위한 유통 체계 개선’이라는 내용을 이끌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은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우유 팩 재활용률이 매우 낮고, 우유 팩의 재활용률은 일반 폐지에 비해서도 낮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우유 팩 재활용률의 상황을 서구와 우리나라, 일반 폐지와 우유 팩 차원에서 비교하여 제시하면, 우유 팩이 충분히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② <자료 2>는 우유 팩의 양쪽에 붙어 있는 ‘폴리에틸렌

필름'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우유팩 재활용 실태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외에 환경오염적 측면도 제시하여 주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다. ③ <자료 3>은 '재생지 품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우유 팩 재활용에 대한 의식 부족'을 '우유 팩 재생지 품질에 대한 ~ 부정적 인식'으로 수정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 ⑤ 단순히 '요약 및 전망'으로 제시하지 않고,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자원 보존'으로 제시하면 본론을 요약(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하고 전망을 제시(환경 자원 보존)할 수 있다.

9.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우유 팩을 재활용한 내용이 '나무', 더 나아가 '지구'를 살린다는 ①의 내용은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라는 주제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표현하고 있고, '나무' → '지구'의 단계로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첫째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우유팩이 '나무를 지키고', '나무'가 '지구를 살'릴 것이라는 표현 방식은 <보기>의 둘째 조건에 제시된 비유법(의인법도 비유법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우리가 살린 우유 팩 나무를 지키고'에 쓰인 통사 구조가 다음 행에도 반복되어 쓰인 표현은 <보기>의 둘째 조건에 제시된 대구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비유와 대구의 표현이 쓰였으나, 우유 팩 재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층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③ 우유 팩 재활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첫째 조건에 어긋나고, 비유만 쓰이고 대구가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둘째 조건에 어긋난다. ④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둘째 조건 중에서도 비유의 표현 방법만 활용되었다. ⑤ 우유 팩 재활용의 효과가 점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둘째 조건 가운데 비유의 표현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 앞뒤 문장은 둘 다 여름철 감기의 예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문장은 '나열' 또는 '추가'의 관계로 이어지므로, '또한'이라는 접속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각각 나타내는 문장 사이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며, ㉡에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름철 감기'라는 화제를 다루는 문단에서 '감기'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무엇인지 진술한 문장은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되어-'와 '-지는'의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쓰였으므로, '노출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열이나 기침을 할 때에는'에서 '기침을 하다'는 호응이 되지만, '열'은 '하다'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이 나거나'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소량(少量)'의 '소(少)'는 '조금씩'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조금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어휘·어법 (반의어의 유형)

정답해설 : ‘가다’와 ‘오다’는 이동 방향이라는 의미 차원에서 상대적 관계를 가지므로, <보기>에서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반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달라야 한다고 했으므로, 공통 의미 요소만 갖고 있으면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 ‘처녀’와 ‘총각’은 ‘성별’의 의미 요소가 다르지만, ‘손녀’와 ‘할아버지’는 ‘성별’과 ‘연령(세대)’의 의미 요소가 다르다. 단 둘 이상의 의미 요소가 다르므로 반의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선배’가 아닌 사람에는 ‘동기생’도 있고 ‘후배’도 있으므로, ‘선배’와 ‘후배’를 모순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길다’와 ‘짧다’는 그 사이에 중간 등급이 있는 반의 관계라고 하였으므로, ‘길지 않다’를 ‘짧다’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어휘·어법 (‘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의 ‘-들’은 셀 수 있는 명사 ‘아이’에 붙어 ‘아이’에 복수의 뜻을 더하고 있다. ㉡이 들어 있는 문장의 생략된 주어는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므로, ㉢의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들’은 ‘부사어(어서)’에 붙어 ‘어서 오세요’의 주어가 손님 1과 2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의 ‘들’은 ‘부사어(밖에서)’에 붙어 ‘밖에서 마시다’의 주어가 손님 1과 2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의 ‘나와서들’에서는 ‘들’에 ‘연결어미(-아서)’가 결합되어, 나와서 인사하는 주체가 영희와 철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의 ‘들’은 ‘부사어(많이)’에 붙어, ‘많이 크다’의 주체가 영희와 철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13-15] 인문, ‘밀이 제안한 일치법과 차이법’

지문해설 : 이 글은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제안했던 ‘일치법’과 ‘차이법’을 설명하고 있다. 일치법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결과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한편 차이법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선행하는 요소들 중에서 유일한 차이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일치법과 차이법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선행하는 요소들이 더 이상 없는지, 드러나지 않은 요소는 없는지, 누락시킨 요소들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우연히 선후 관계로 일어난 현상과, 하나의 원인이 야기한 두 가지 현상을 인과 관계와 구별해야 한다.

[주제]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1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일치법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⑤를 보면 20명의 아기들이 ‘신장 결석’이라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신장 결석에 걸린 20명의 아기들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인 ‘A사의 분유’를 찾아 이것을 ‘신장 결석’의 원인으로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일치법의 사례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일치법으로 ‘두꺼비의 울음’이 ‘장대비’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대비’가 내리는 여러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두꺼비의 울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경우만 제시되어 있어 ‘두꺼비의 울음’이 여러 상황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② 일치법으로 ‘열’이 ‘붉은 반점’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붉은 반점’이 나는 여러 경우에 공통적으로 ‘열’이라는 요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경우만 제시되어 있어 ‘열’이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③ 일치법으로 ‘커피’가 ‘불면’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면’이 되는 여러 상황에 ‘커피’라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면’하는 날 저녁에만 커피를 마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커피’는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과의 차이가 되고 있다. ④ 일치법으로 ‘컴퓨터 게임 시간의 증가’가 ‘학력 하락’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력 하락’이 되는 여러 경우에 공통적으로 ‘컴퓨터 게임 시간의 증가’라는 요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컴퓨터 게임 시간의 증가’가 ‘학력 하락’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인지 판단할 수 없다.

14. 추론적 사고(정보 도식화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차이법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선행하는 요소들 중에서 유일한 차이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차이법을 도식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 즉 ‘X’와 ‘-X’가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유일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X’와 ‘-X’의 사례가 있으면서, 두 사례의 유일한 차이(a)가 있는 ①이 차이법을 적절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결과가 나타난 사례(X)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X)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두 사례의 선행된 요소의 차이는 ‘a, c, d, e, f’가 되어 a가 유일한 차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③ 결과가 나타난 사례(X)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X)가 모두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는 선행하는 요소들의 유일한 차이가 아니라 공통된 요소이다. ④ 결과가 나타난 첫 번째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 b, e 세 개나 된다. 또한 결과가 나타난 두 번째 사

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가 아니다. ⑤ 결과가 나타난 첫 번째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가 아니라 c이다. 또한 결과가 나타난 두 번째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와 f 두 개나 된다.

15. 비판적 사고(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문제에서 ‘㉠에 유의하여 [가]의 판단을 검토할 때’라고 했으므로, ‘선행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밝혀진 요소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는 없는지, 누락된 요소 또는 인식하지 못해 누락시킨 요소는 없는지’를 고려해서 [가]의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함께 먹은 음식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와 같은 진술은 ㉠과 관련이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선행하는 요소’ 가운데 검토해야 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 ③ ‘잊어버리고 기록하지 않은 음식’은 ‘인식하지 못해 누락시킨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돼지고기를 담은 그릇’은 ‘밝혀진 요소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에 해당한다. ⑤ ‘다른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지만 그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학생’은 ‘누락시킨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한 내용이다.

[16~18] 사회, ‘혁신의 공간적 확산’

지문해설 : 이 글은 혁신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혁신의 확산은 시공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기, 확산기, 심화·포화기의 3단계로 공간 확산 과정을 거친다. 혁신의 공간적 확산은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염 확산은 인접 효과에 의해 나타나고 계층 확산은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아울러 혁신의 수용자 수는 초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증가한 후 결국 포화 상태에 이르는 양상을 보인다.

[주제] 혁신 확산의 단계와 특성

16. 추론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추리)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혁신의 수용자 수는 초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포화 상태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보인다. 따라서 수용자 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혁신 수용자는 혁신을 수용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 수용자가 혁신을 수용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계층 효과에 따른 계층 확산으로 인해 규모가 큰 도시에서 규모가 작은 도시로 혁신이 전파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규모가 혁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수용하는 ‘다수의 후기 수용자’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꺼려서 한참 지나서야 한참 지나서야 혁신을 수용하는 ‘소수의 지각자’는 소극적인 수용자들이라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심화·포화기에는 최초 발생원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심화·포화기에는 수용률은 거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7.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사례에 적용)

정답해설 : 새로운 여행 상품의 예약이 폭주한 이유는 여행사의 ‘인터넷 광고’보다 ‘텔레비전 광고’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와 ‘텔레비전 광고’ 두 가지는 모두 대중 매체로 인한 것이므로 ㉠의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은 ‘미용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미용사들의 지역 모임’이, ②는 ‘경제 뉴스’보다 ‘직장 동료들’이, ③은 ‘신문 광고’보다 ‘직거래 구매자들의 입소문’이, ⑤는 ‘라디오 광고’보다 ‘손님들의 호평’이 확산에 더 큰 영향을 준 요인이므로 ㉠의 ‘대중 매체’보다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확산에 더 큰 영향을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8. 비판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타당성 판단)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계층 확산은 도시 규모가 클수록 혁신 확산이 잘 이루어지는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나며, 규모가 큰 도시로부터 그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로 혁신이 전파되는 양상을 띤다. 그러므로 거대 도시에서 유행하는 최신 패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로 전파된 것은 계층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ㄴ) 또한 1문단에서 혁신의 공간 확산은 발생기, 확산기, 심화·포화기를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기를 대도시의 부유층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발생기로, 어디서나 전화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심화·포화기로 ‘전화기’의 확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ㄷ) 따라서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사례는 ㄴ, ㄷ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1문단에서 혁신의 확산은 특정 지역이나 사회 집단의 문화나 기술, 아이디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지역 또는 사회 집단으로 전파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술관에서 매년 같은 내용의 기획 전시를 하는 것은 이러한 시공간적인 전파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혁신 확산의 예로 볼 수 없다.(ㄱ) 3문단에서 혁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혁신 수용자는 소수의 혁신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트북 컴퓨터가 처음 시장에 나오자마자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전기 수용자가 아니라 소수의 혁신자라고 해야 한다.(ㄹ)

[19-24] 시가 복합

(가) 김동명, ‘파초’

작품해설 : 원산지인 ‘남국’을 떠나 추운 곳에서 가련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파초에

화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여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견디어 내려는 태도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파초와 화자는 ‘조국’을 떠나 ‘겨울’을 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화자가 파초를 바라보는 시선은 연민, 위안, 동류의식과 연대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파초를 부르는 호칭이 ‘너’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다는 점, 화자가 파초를 향해 하는 행위의 변화 등에서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창작 연대를 감안할 때, ‘겨울’은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견디어 나가려는 태도

(나) 김광균, ‘수철리’

작품해설 :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은 화자가 느끼는 감회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무덤 옆 밤나무의 여윈 가지, 노을에 젖은 비석,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 등의 이미지를 통해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배경으로 깔린 ‘노을’과 ‘황혼’은 이러한 비애의 분위기와 조응하고 있다. 여윈 ‘흰나비’는 ‘무형한 공중에 체온이 꺼져 버린’ 누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화자는 누이의 영혼이 ‘갈 길을 못 찾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제는 누이가 다시 ‘함박꽃’처럼 눈을 뜰 수 없다는 인식으로 비애와 서러움에 젖고 있다.

[주제]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느낀 감회

(다) 윤선도, ‘견희요’

작가인 고산 윤선도가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연시조이다. 제1수에서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강직한 성품이 드러나고, 제2수에서는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하소연이, 제3수에서는 임금을 향한 변함 없는 충성심이, 제4수에서는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제5수에서는 충(忠)과 효(孝)를 동일시하는 마음이 표출되어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충성심

19.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아 누이동생을 추억한다. 그러나 누이동생은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흙 속에 묻혀 있으며, 나즉-히 불려도 ‘함박꽃처럼’ 다시 눈을 뜰 수 없다. 삶과 죽음이라는 절대적 갈림길에서 화자는 서러움에 젖어 있는 것이다. (다)에서 북방에 유배중인 화자는 ‘아버이’를 몹시 그리워하지만 ‘길고 긴’ 뉘, ‘멀고 먼’ 물로 표상되는 아버이와의 거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안타까운 그리움을 ‘울고 가는 외기러기’의 형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어 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

으며, (나)에는 죽은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느끼는 감회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반대되는 이상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찾기도 어렵다. ② (가)에서 파초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는 않고 있으며, (다)시는 자연의 섭리와는 관련이 없다. ④ (나)에서는 대립적 가치를 찾기 어려우며, (가)와 (다)에서는 대립적 가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된다기보다는 화자의 마음이 정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⑤ (가)~(다) 모두 시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20. 추론적 사고(화자의 태도 추리)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조국을 떠나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와 ‘꿈’에 젖어 있는 파초에서 연민과 동류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샘물을 길어 발등에 부어주기도 하고, 밤에는 머리맡에 있게 한다. 이러한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화자는 파초에게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말한다. 이는 ‘겨울밤’으로 상징되는 현실 상황을 함께 견디려는 태도를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정적 현실 상황 변화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의 ‘비인 묘지’에는 물소리와 바람 소리가 있을 뿐, 그 묘지 위에 별들이 무엇을 속삭였는지 모른다.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을 뜰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서러운 생각’에 사무치고 있다. 누이동생의 죽음이라는 현실 상황은 변화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화적’은 ‘상대를 용서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의 뜻을 가진 말이다. (가)에서 상대를 용서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나)에 ‘독단적’인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② ‘단정적’은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의 뜻을 가진 말이다. (가)에서 화자가 대상(파초)를 향해 보이는 태도는 연민, 동질감, 일체감, 유대 등이므로 이러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나)에 나타나는 공허감, 적막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③ (가)에서 대상과의 관계 단절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나)에서는 화자가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관계 형성’을 열망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나)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절대적 거리감에서 화자의 비관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역시 분명하지는 않다. ‘낙천적’은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의 의미로, (가)에서 낙천적 태도를 읽을 수는 없다.

21.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소낙비’는 여인으로 의인화된 ‘파초’의 정열을 나타내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며, ‘샘물’을 ‘발등에 붓는다’는 화자가 파초에 대해 갖는 연민을 드러내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B]에서 ‘울어 예는 시내’는 ‘임 향한 내 뜻’과 정서를 구체화하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B]를 문답 형식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대상인 ‘시내’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 의지의 투영으로 보아야 한다. ③ ④ ⑤ 대구, 반어적 표현, 어조 변화는 두 부분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2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에서 화자가 파초의 발등에 물을 부어주거나, 자신의 머리맡에 있게 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파초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초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연민과 동류의식이다. 파초는 화자에게 모성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돌봐주어야 대상이자 연민의 대상, 자신과 동일시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에서 ‘머리맡에 있게 한다’는 구절은, ‘조국을 떠났다’, ‘밤이 차다’로 보아 파초를 돌보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는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즐거 너를 위해 종이 되’고 싶다는 구절에서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화자는 ‘파초’를 위해 샘물을 길어 발등에 붓고, 차가운 밤에는 머리맡에 있게 하며, 즐겨 종이 되고자 한다. 이는 화자가 파초에서 느끼는 연민과 동류의식, 일체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감정과 의식은 마지막 연의 ‘우리’라는 표현으로 집약된다. 그러기에 화자는 ‘차가운 겨울밤’으로 상징되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우리의 겨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3.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동생의 가슴 우’에 내리는 ‘비’, 쌓이는 ‘눈’과 ‘이마 우에서’ 속삭이는 별은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와 함께 죽음의 적막함과 공허감을 상기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지를 찾기는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환-하고’, ‘아득-한’ 등의 ‘-’는 그것이 없을 때보다 시어가 가지는 느낌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② 누이동생 무덤 옆의 ‘밤나무’는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젓는다. 이러한 밤나무의 형상은 무덤 주변의 적막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③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에 이어진 ‘어느 무형한 공중으로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라는 구절로 보아 ‘흰나비’는 ‘누이동생’을 연상시키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누이의 무덤 옆에서 누이를 떠올리고 있다.

24. 창의적 사고(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구조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2수로 보아, 망령된 ‘내 일’은 ‘임 위한 탓’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에 종장에서 보듯이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3수의 ‘내 뜻’은 ‘임 향한’ 것이기에, ‘내 일’을 ‘내 뜻’에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내 일’을 두고 ‘아무가’ 임에게 이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길고 긴’ 뉘, ‘멀

고 먼’ 물로 인해 화자가 그리워하는 ‘아버이’가 계시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공간임이 드러난다. ④ 제4수의 ‘뜻’의 대상은 ‘아버이’이다. 제5수에서 화자는 ‘임금을 잊으면 귀 불효인가 여기노라’하여 ‘효’의 대상을 임금으로 확대하고 있다.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임금에 대한 ‘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제1수와 관련하여 보면, 임금을 향해 ‘내 몸의 해울 일’만을 닦고 닦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5-28] 현대소설 - 오영수, ‘화산댁이’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52년에 발표된 소설로 전통적인 가족애가 근대화로 붕괴되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점을 시골에 사는 어머니(화산댁이)와 도시에 사는 아들과의 갈등과 소재의 대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메산골에 사는 화산댁이는 버리고 멀리 도시에서 도방을 하는 작은아들을 찾아온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화산댁이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아들은 화산댁이에게 고무신을 주고는 신고 온 짚신을 갖다버린다. 저녁을 먹을 때는 화산댁이가 밥이 적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밥을 퍼주지만 아들은 역정을 내며 화를 낸다. 그리고 화산댁이가 아들이 좋아하는 꿀밤떡을 어렵게 갖고 왔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너덧 살 된 손녀는 한 입 씹고는 뱉어버린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화산댁이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일찍 자라고 한다.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치다꺼리다가 참아왔던 뒤를 보기 위해 집밖으로 나온다. 그러나 뒷간을 찾지 못한 화산댁이는 새벽에 치울 심산으로 할 수 없이 담 밑에다 뒤를 본다. 그런데 아침에 뒤를 갖다버린 쓰레기통에서 화산댁은 꿀밤떡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본다. 화산댁은 결국 아들집을 떠나 자신이 살던 시골로 되돌아온다.

[주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붕괴되어가는 가족애

25. 사실적 사고(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화산댁이는 아들을 위해 귀한 꿀밤떡을 해왔지만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일찍 자라고 한다. 이런 아들에 대한 화산댁이의 심정은 ‘자꾸만 쓸쓸했다. 뒷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이러한 심정은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눕는다.’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화산댁이는 수더분한 색시에게 장가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하는 아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화산댁이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아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아들은 손 끝에 짚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로 보아, 화산댁이가 고무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② 지문에는 꿀밤떡을 내뱉는 손녀에 대한 화산댁이의 반응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화산댁이의 ‘저거 조면(자기네들끼리 좋으면) 그만이지’로 보

아, 화산택이가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⑤ ‘화산택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로 보아, 화산택이가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6. 추리적 사고(장면이 갖는 기능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A]는 화산택이가 큰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을 상상한 것으로, 이곳에서 화산택이는 큰아들 내외와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고 있다. 화산택이가 이런 상황을 상상한 것은 작은아들의 집에서는 그런 가족애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산택이는 큰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 상황과 작은아들 내외와 함께 있는 현재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없다. ② [A]는 화산택이가 자신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일들을 상상한 것으로, 배경이 환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도 허구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다. ③ [A]는 화산택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내적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④ [A]는 화산택이의 상상으로 사건이 병치된 것은 아니다.

27. 추론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서술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제는 서술자가 서술할 때 서술자의 시각에서 서술하는지, 아니면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지를 구별하라는 것이다. ㉞은 적산집에는 뒷간이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술한 것으로 서술자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㉟은 화산택이의 심정을 서술한 것으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② ㉠은 화산택이가 이야기 소리를 들었다는 서술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④ ㉡은 화산택이의 심정을 서술한 것으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⑤ ㉢은 화산택이가 아침에 뒷간을 찾아보아도 못 찾았다는 서술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28. 비판적 사고(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해설 :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소재들이 ‘시골(자연)과 도시(문명)’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의 대비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수채’는 집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나가도록 만든 시설로, 도시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시골의 뒷간과 대비되는 사물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짚세기’는 화산택이가 시골에서 신던 것이고, ‘고무신’은 도시에서 작은아들이 준 것이다. ② ‘초가집’은 화산택이의 시골집이고, ‘적산집’은 작은아들의 도시 집이다. ③ ‘토벽’은 화산택이의 초가집 벽이고, ‘횃가루 벽’은 작은아들의

도시 집 벽이다. ④ ‘갈자리 방’은 화산택이의 시골집 방이고, ‘다다미방’은 작은아들의 도시 집 방이다.

[29-32] 기술, ‘진공관과 트랜지스터’

지문해설 : 2극 진공관과 3극 진공관의 구조 및 원리를 설명한 후, 진공관의 문제점을 극복한 트랜지스터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극 진공관은 유리관, 필라멘트, 금속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판에 (+)전압 또는 (-)전압을 걸어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한다. 3극 진공관은 2극 진공관과 달리 그리드라는 전극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드는 전류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진공관은 부피가 크고, 유리관이 깨지기 쉬우며, 예열이 필요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트랜지스터이다. 트랜지스터는 잉여전자를 이용하는 n형 반도체와 정공을 이용하는 p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 진공관과 트랜지스터의 구조 및 원리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해설 : 트랜지스터의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pnp 혹은 npn 접합 소자로 불리는 트랜지스터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pnp나 npn 구조로 3개를 접합해 만든 것이다. 여기서 가운데 위치한 n형이나 p형 반도체는 진공관의 그리드처럼 증폭 기능을 담당한다. 즉 pnp 접합 소자에서는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를 사용해 전류를 증폭한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문단에서 진공관의 개발이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의 출현 및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③ 플레밍은 에디슨이 우연히 진공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한 것을 토대로 2극 진공관을 발명하였다. 3극 진공관은 2극 진공관이 발명된 이후에 개발된 것이다. ④ 4문단에서 pn 접합 소자가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진공관 내부의 필라멘트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된다고 하고 있다.

30. 추론적 이해(시각 자료를 통한 정보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잉여 전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n형 반도체에 해당하고, (나)는 정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p형 반도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 (나), (가)를 차례로 접합하면 npn 접합 소자가 된다. npn 접합 소자는 가운데 위치한 반도체가 증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잉여전자는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순수한 규소는 원자의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인 최외각 전자가 4개이며 최외각 전자들은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 ③ (가)는 최외각 전자

가 5개인 비소를 규소에 소량 첨가해 만든 n형 반도체이다. 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후 n형에 (-)전압을, p형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른다.

3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해설 : 진공관은 부피가 컸으며, 유리관은 깨지기 쉬웠고, 필라멘트는 예열이 필요하고 끊어지기도 쉬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합해 만든 트랜지스터이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보청기’도 기존의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에 비해 부피가 작아졌으며, 유리관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예열도 필요 없어졌다. 내부를 진공으로 만드는 것은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 진공관을 사용하면 진공관이 유리였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반도체는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 없다. ② 반도체는 진공관에 비해 부피가 작은 장점이 있다. ③ 트랜지스터의 가운데 위치한 반도체가 진공관의 그리드와 같은 역할을 해 트랜지스터는 증폭 기능을 한다. ⑤ 규소나 게르마늄에 불순물을 첨가해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32. 어휘·어법(어휘의 의미 이해)

정답 해설 : ㉠의 ‘토대’는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토대’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기초, 기틀, 바탕, 발판’ 등은 적절하나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33-36] 예술, ‘연주 개념의 역사적 변천’

지문 해설 : 시대에 따라 변화된 연주의 의미에 대해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18세기에는 당시 유행하던 영향미학에 따라 음악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으며, 그에 따라 연주란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19세기에 들어 바뀌었다. 형식에 의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연주자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연주가 해석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 변화했다. 음악의 전문화 현상에 영향을 받아 연주자들의 독자성이 강조되면서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주제] 시대에 따라 변화된 연주의 의미

33. 비판적 사고(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 해설 : 이 글은 연주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연주라는 중심 개념의 변천을 역사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연주의 의미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기존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시대에 따른 연주의 의미 변화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어 시대에 따른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연주의 효용성을 예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연주의 의미가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뿐,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34. 추론적 사고(정보의 추리)

정답 해설 : ㉠은 ‘18세기의 연주’를 의미한다. 18세기에는 음악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 감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연주는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작곡자가 의도한 ‘내용’인 객관적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연주자가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작품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② 작곡자와 연주자가 뚜렷이 분리된 것도 20세에 들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③ 작품의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의 의미들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세기이다. ④ 형식을 강조한 아름다움은 19세기 음악의 특징이다.

3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해설 : 20세기에는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작품의 해석이 중요해졌다. 그에 따라 작곡자의 작품은 연주자에 의해 재창조되었다. 연주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작품이 본래의 악곡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맥적으로 ㉠은 바로 연주자의 개성에 따른 주관적 해석에 의해 작품이 새롭게 지니게 된 의미를 뜻한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예는 ⑤이다. ⑤에서는 연주자가 자신의 개성에 따라 베토벤의 <월광>의 빠르기와 셈여림에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중시했던 것은 18세기의 경향이다. ② 작품이 지닌 형식의 아름다움이 강조된 것은 19세기 음악의 특징이다. 또한 곡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연주자의 주관적 해석과는 관련이 없는 감상이다. ③ 작품의 주제 선율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작품이 본래 지닌 내용이 충실하게 관객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은 작품이 본래 지닌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작품의 효용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36. 어휘·어법(사전적 의미의 이해)

정답 해설 : ‘향유’는 ‘누리어 가짐’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데, ‘혼자서 독차지하여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혼자서 독차지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은 ‘독점’이다.

정답 ④

[37-39] 드라마 극본 - 김영현, 「대장금」

작품해설 : 이 글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임금의 여주치의로 활약했던 의녀 대장금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대장금’의 극본이다. 수라간에서 요리를 하던 대장금은 궁궐에서 쫓겨났다가 의녀가 되어 돌아와 임금과 인연을 맺게 되고 ‘대장금’이라는 칭호도 받게 된다. 장금의 부모가 만나는 내용에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되어 장금이의 탄생, 수난, 업적 등으로 그 내용이 전개된다.

37.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S# 29~30’에서 최 상궁이 보쌈을 당해 끌려 온 박 나인의 죄를 추궁하고 있고, 이 때 기미 상궁과 나인들 예닐곱명, 최 나인 등이 최 상궁을 보좌하고 있다. ‘S# 50’에서의 한 나인의 발언으로 보아 박 나인은 ‘남자와 통정’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최 상궁의 수하인 한 나인은 박 나인의 목숨을 염려하며 애태우고 있고, 천수는 천수대로 박 나인으로 하여금 토약질을 하게 하여 목숨을 살리려 애쓰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박 나인을 중심으로 할 때, 최 상궁과 박 나인은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있고, 박 나인과 한 나인, 그리고 천수는 우호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최 상궁, 박 나인, 한 나인, 천수 등의 대사에서는 주로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S# 48’과 ‘S# 50’에 회상 장면이 나온다. ③, ⑤ 지문에 제시된 장면들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그런데 ‘S# 29’, ‘S# 30’은 죄인을 엄하게 추궁하는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이고, ‘S# 47’은 사약을 받은 박 나인이 토약질을 하는 장면이며, ‘S# 48~51’ 장면은 매우 침통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즈넉한(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나 갈등 해결과 거리가 멀다.

38. 소재의 가능 파악

‘S# 50’에서 한 나인은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여 박 나인의 결백을 믿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것은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앞부분의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라는 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거물에 근거한 생각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S# 48’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S# 49’의 ‘혹,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며 혹,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다오.’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② ‘S# 50’의 한 나인의 ‘목소리’를 참조하면 박 나인이 최 상궁에게 추궁당하는 죄

목은 ‘남자와 통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S# 48’의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다.’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⑤ ‘S# 30’에서 몹시 불안한 몸짓으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의 태도로 미루어 알 수 있는데, ‘S# 48’의 내용으로 보아 그 ‘무언가’는 박 나인이 받아먹은 부자탕을 ‘해독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9.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보기>에서,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는’ 촬영 기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S# 30’은 ‘최고 상궁’이 바닥에 꿇려져 있는 박 나인을 내려다보며 추상같이 죄를 추궁하는 장면이므로 박 나인의 시각에 맞추어 ‘최고 상궁’의 모습을 올려 찍으면 그 위세가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 ㉡, ㉢, ㉣의 인물들은 그 권위나 위세를 내세울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다.

[40-43]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심청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판소리계 소설이란 몇 개의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이 판소리 대본을 소설로 정착시킨 형태의 소설을 말한다. 이 작품도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人身供犧) 설화, 효녀 지은 설화 등을 근원설화로 하여 만들어진 판소리 ‘심청가’가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제시된 부분은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든 후 수궁에 머무는 장면이다. 구체적으로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수궁 사람들에 의해 심청이 정중하게 대접받는 장면 - 인당수에 뛰어들기 전 심청을 돌보아주었던 장 승상 댁 부인이 심청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배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 - 어머니인 옥진 부인이 수궁으로 찾아와 모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 도화동 사람들이 심청을 불쌍히 여겨 비석을 세우는 장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제] 부모에 대한 효도

4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제시된 장면에서 대표적인 초월적 인물은 옥황상제와 천상의 광한전에 사는 옥진 부인이다. 옥황상제는 심청의 어머니인 옥진 부인이 수궁으로 와 심청을 만나는 것을 허락한다. 옥진 부인이 심청과 이별하면서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와 ‘후에 다시 만나 길 날이 있으리라’라고 하여 심청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대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나 내용이 없으며, 더욱이 이 부

분은 현실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다. ③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장면은 간결한 문체가 아니다. 또 각각 다른 네 개의 사건이 나타날 뿐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주는 요소는 없다. ④ 장 승상 댁 부인의 배위에서의 제사 장면이나 도화동 사람들이 심청을 위한 비석을 세우는 장면 등에서 긴박한 분위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⑤ 어머니인 옥진 부인과의 대화 장면은 있으나 독백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심청이나 옥진 부인, 장 승상 댁 부인 등의 내면 갈등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41.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해설 : ㉠은 장 승상 댁 부인이 심청을 위해 제사를 지낸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는 장 승상 댁 부인의 정성에 대한 하늘의 감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장 승상 댁 부인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죽자에 물이 흐르고 검게 변하면 심청이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면 누군가에 의해 살아났는가며 의혹을 품는 것으로 보아 심청의 생사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소재이다. ② 강가에 나가 배를 타고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심청의 혼백이 와서 흠향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아 장 승상 댁 부인에게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④ 제시문의 첫 부분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사해 용왕들이 극진히 심청을 대접하는 것, 또, 얼굴도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를 만나고 또 그럼으로써 아버지를 다시 만날 것을 알게 되는 것 보아 수궁은 심청의 효성(아버지를 위해 제물로 인당수에 뛰어듦)이 보상 받는 공간이다. ⑤ 옥진 부인이 이승에서 끼었던 옥지환을 심청이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딸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4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판각(板刻), 쉽게 말해 책을 찍은 곳이 서울이면 ‘경판본(京板本)’, 완산, 즉 지금의 전주이면 완판본(完板本)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안성에서 찍은 안성본(安城本)이 있다. <보기>는 경판본에는 없는 대목이 갖는 효과나 의미를 언급하고 있고, 답지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감상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옥진 부인은 남편과 이승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심청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예고 등을 말하고 있지 남편인 심 봉사의 어리석은 행위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광한전의 옥진 부인은 용왕이 겁을 내고 수궁이 긴장할 정도로 지위나 지체가 높은 인물이다. 심청을 이러한 인물의 딸로 설정함으로써 심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② 장 승상 댁 부인의 제문(祭文)에 ‘어찌 아니 슬플쏘냐.’나, 기러기와 어선들의 행위 묘사 부분 등에서 슬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③ ‘봄풀에 해마다 한이 가없네.’라는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신이 이승에서 사용했던 ‘옥지환’과 매듭 등을 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에

혈연의 친밀감이 드러난다.

43.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활용)

정답해설 : ㉠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지금까지 살아 온 15년 내내 한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각골통한(刻骨痛恨)이 ㉠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을 뜻한다. ③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한다. ④ ‘진퇴양난(進退兩難)’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한다. ⑤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44-46] 언어, 한국어 경어법

지문해설 : 한국어에는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경어법 면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표현들이 많다. 이 글은 명제적 의미는 유사하나 경어법 면에서 다른 ‘감사하다’와 ‘고맙다’, 비슷한 의미 기능으로 쓰이지만 어휘적 의미의 차이로 경어법이 다른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예로 들어 경어법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거리의 요인을 분석한 글이다.

44. 정보의 개괄적 확인

이 글에서는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대화 참가자들 간의 ‘서열’, ‘친분’,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을 들었다. 성별에 따라 높임 표현의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은 글 속에 나와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연세’, ‘생신’, ‘진지’가 ‘나이’, ‘생일’, ‘밥’보다 높임 표현으로 쓰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친분이 높임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고 하였다. ⑤ 글 전반을 통해 한국어의 높임법은 대화 상대가 누구인가, 또는 상황의 격식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사례의 적절성 판단

㉠은 고유어 ‘나이’보다 한자어 ‘연세(年歲)’가 더 높은 말임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이-치아(齒牙)’가 동일한 유형이다. ㉡은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둘 다 한자어인데 후자인 ‘생신’이 높임의 정도가 더 큰 말로 통용되는데, ‘사망(死亡)-별세(別世)’의 경우가 동일한 유형이다. ㉢은 ‘밥’과 ‘진지’ 둘 다 고유어인데 후자인 ‘진지’

가 높임의 정도가 더 큰 말로 통용되는데, ‘자다-주무시다’의 경우가 동일한 유형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의 ‘말’과 ‘말씀’은 둘 다 고유어인데 후자가 높임의 정도가 더 큰 경우이다. ③ ㉡의 ‘따님’은 한자어가 아니다. ④ ㉢의 ‘어머니’는 한자어가 아니다. ㉠의 ‘서점’은 ‘책방’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 ⑤ ㉣의 ‘내의’가 ‘속옷’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의 ‘빈곤하다’ 역시 ‘가난하다’보다 높임의 정도가 큰 표현이 아니다.

46.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일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서열상 상위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위자에게 사과나 부탁을 할 때 쓰는 말이다. ①의 경우에도 화자인 ‘시장’ 입장에서 볼 때 ‘과장’은 하위자에 해당하므로 ‘미안하다’는 말을 쓸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비록 상위자이지만 대화 내용으로 보아 친한 사이로 보이므로 ‘미안하다’의 쓰임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③ 회의석상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평소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석에서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고 한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④ 하위자인 부장은 상위자인 사장에게 ‘죄송하다’를, 상위자인 사장은 하위자인 부장에게 ‘미안하다’를 썼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죄송하다’는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므로 가까운 친구에게 사과하는 말로는 부적절하다.

[47~50] 과학, ‘운동할 때 작용하는 운동생리학적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운동생리학적 원리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운동 신경과 이에 지배되는 근섬유들을 운동 단위라고 하는데, 운동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섬유는 지근섬유와 속근섬유로 나뉜다. 지근섬유로 구성된 운동 단위는 속근섬유로 구성된 운동 단위에 비해 근섬유가 적다. 지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력과 느린 수축 속도, 높은 피로 저항력을 띠고,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속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축력과 빠른 수축 속도, 낮은 피로 저항력을 지닌다. 따라서 지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에, 속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폭발적인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에 적합하다. 또한 운동 강도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갈수록 지근섬유, a형 속근섬유, b형 속근섬유가 차례로 추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제] 지근섬유와 속근섬유의 특성으로 알아 본 운동생리학적 원리

47. 사실적 사고(글의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지근섬유는 하나의 운동신경에 10~180개 정도가 연결되고, 속근섬유는 300~800개 정도가 연결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운동 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 수는 속근섬유가 지근섬유보다 많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하나의 운동 신경과 이에 지배되는 근섬유들을 운동 단위라고 부른다고 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속근섬유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적어 흰색을 띤다고 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다리 근육을 포함한 골격근은 수많은 근섬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근섬유들은 운동 신경의 자극에 의해 수축된다고 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하나의 운동 신경에 연결되는 근섬유가 많을수록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한다고 하고 있다.

48. 비판적 사고(정보를 활용한 시각 자료의 분석적 이해)

정답해설 : ‘크기의 원리’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운동을 할 때 운동 단위는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원된다. 이 원리에 따라 운동 강도가 저장도에서 고강도로 높아질수록 작은 크기의 운동 단위를 가지는 지근섬유에, 추가적으로 a형 속근섬유, b형 속근섬유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잘 표현한 것은 ‘운동 강도’가 커질수록 ‘근섬유 사용 비율’이 지근섬유에 속근섬유가 계속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는 ③번이다.

정답 ③

49.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운동선수 A, B, C의 장딴지 근육의 운동 단위 수는 같다고 하였으므로, 운동 단위를 100이라고 가정하면 세 선수의 지근섬유와 속근섬유의 비는 80:20, 50:50, 20:80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에 따르면, 지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력과 느린 수축 속도, 높은 피로 저항력을 띠고,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속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축력과 빠른 수축 속도, 낮은 피로 저항력을 띤다. 따라서 속근섬유의 비율이 C에 비해 낮은 B는 C에 비하여 장딴지 근육의 수축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는 B보다 지근섬유의 비율이 높으므로 B보다 장딴지 근육의 피로 저항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C는 A보다 속근섬유 비율이 높으므로 근육의 수축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에 따르면, 속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이 1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운동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속근섬유 비율이 가장 높은 C가 100m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에 따르면, 지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지구력이 강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운동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지근섬유 비율이 가장 높은 A가 마라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50.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노력이나 부담 따위가 적게’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④번이다. 이때 ‘가벼운 운동’과 ‘가벼운 활동’ 등은 노력이나 부담이 적은 운동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무게가 일반적이거나 기준이 되는 대상의 것보다 적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② ‘주머니가 가볍다’는 ‘가지고 있는 돈이 적다’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다. ③ ‘생각이나 언어, 행동이 침착하지 못하거나 진득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⑤ 주로 ‘가볍게’의 꼴로 쓰여 ‘정도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